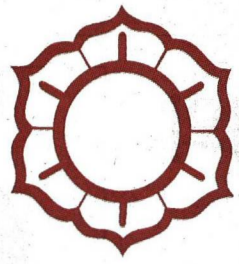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홈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1년
12월 1일
토요일
제29호

이 달의 종조법설
선지식은 착한 법을 가진 이라. 스스로 낙을 구하지 않
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낙을 구하며 남의 허물을 흠잡
지 아니하고 항상 착한 것만 말하니 이리므로 선지식
이니라.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승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창교절 특정 종령 유지

오늘은 스물 아홉 돌을 맞는 총지종의 창교절(創敎節)이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절(聖道節)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 사바세계에 새로운 빛을 밝히며 불국정토 건설과 호국대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다라니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날입니다. 또한 다라니 수법의 실천과 정법체득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오늘이 창교절은 더욱 뜻깊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돌이켜 생각컨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당시 만년(萬難)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종과 함께 종단을 반석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종조님의 응화출세의 일대기연과 불요불굴의 확고한 의지, 중생제도라는

려 정제와 담보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는 승단과 교도 보살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수행이나 모든 면에서 퇴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 한해의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지난 시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현재의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올해에 추진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야 더욱 앞날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

창조 당시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재무장

일념의 무진서원 대정진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창교절은 우리에게서 더욱더 큰 사명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종조 원정대성사님께서 종단을 창종하신 지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열반하신 지도 어언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 또한 예외가 아닌 듯,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종단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급선무가 바로 종단의 발전에 관련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승단과 교도들의 신심을 더욱 고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에서부터 종단불사나 기타 여러 가지 수행방편과 관련한 문제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나가는지 하는 것은 종단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정님께서 이 종단을 창종하시어 몸소 이끌어 오신 세월보다 열반하신 후의 세월이 훨씬 더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 보다 오히려

저야 할 것입니다. 자기반성과 자기점검이 없으면 수행자라 할 수 없고, 자기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승하였을 때, 구성원 전체가 발전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종단의 발전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의 말씀에 "초목전석(草木石)도 쓸 곳이 있지만, 해태한 자는 재물없고 아무 쓸 곳 없을지니, 명칭보업 증장함은 정진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정진바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 속 깊이 새겨서, 불퇴전의 용맹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창교절을 맞이하여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과 다함께 그 뜻을 기리는 바이며,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재무장하고,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교절 인사말씀을 가름합니다.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시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30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 종령 특정 함장

창종 30년, 성년 종단으로 출발

원정대성사의 교상과 사상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

종단의 전 교도들은 11월 6일부터 12월 24일 창교절까지 49일 동안 가사법의 제작 원만을 위한 불공을 올려 교리에 맞는 새로운 법의와 가사가 마침내 세상에 선을 보았다.

이는 97년부터 진행되어온 가사법의 제작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며, 제2 창종종 중흥의 깃발을 올리는 날이기도 하다.

법의 제작 디자인 책임자인 이기향 교수(한성대 예술대)는 "정통불교를 표방하는 불교총지종의 사상과 교상에 어법하고, 묘의를 갖추고 불법을 장엄할 수 있으며 시대의 미감을 반영하고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법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고증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다"며 그동안 법의의 제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의를 직접 제작한 사별의상연구소 이상국 대표는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뤄져 하루 한 벌정도 제작하며, 특히 불순한 마음과 경만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항상 부처님의 법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

다"고 했다. 이상국 대표의 법의에 씨줄과 날줄 한을 한을 맞추는 진지한 모습에 이번 법의를 제작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대중사의 법의는 은은한 문양의 황금색과 홍색 가사로, 종사이하 스승은 자색법에 황금색 가사로 색상을 디자인했으며 양 소매 끝단에 각각 3개의 디자인 선을 넣어 三密(身密, 口密, 意密)의 숫자적 의미를 나타내고 옆술기에는 각각 6개의 주름으로 六大(地, 水, 火, 風, 空, 識)를 상징하였으며, 뒤 중심선에는 마주보는 주름 2쌍, 즉 4개의 주름을 넣어 四雙(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법만다라, 갈마만다라)을 상징 표현하였다.

금가사는 태장계를 의미하는 법자 "이"자와 금강계를 의미하는 법자 "람"자가 가운데 쓰여진 육합상을 중앙에 수놓아 목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72년 창종당시의 법의는 신라시대의 상의 양식과 같이 깃을 밑에까지 내려서 만들고 소매는 작은 홍탁소매로 하

며 색조는 백, 황, 홍, 흑색의 사중수법에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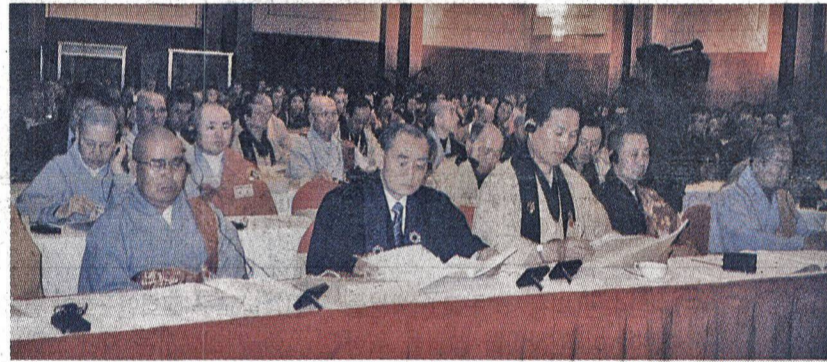
금가사는 흑자색자에 육합상을 세곳에 백색으로 지수하였던 것을 사용하다가 아직 밀교의 사중수법에 대한 교도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이질감과 혼란스러움을 준다하여 창종후 2년정도 지나서 지금의 흑색법에 자색가사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원정대성사는 이러한 흑색 법의에 자색가사 사용을 78년 제11회 중앙종회 및 제9회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에서 흑색법의의 착용을 공식화하였다.

이번 법의의 가사조성불사는 원정대성사께서 퍼신 교상과 사상을 법의에 그대로 나타내어 기존의 사중수법의 백, 황, 홍, 흑의 색을 승화시킨 자색 법의로 하여금 더욱 엄격한, 공경의 대상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우리종단에서도 자색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번 법의와 가사조성불사는 원정대성사의 증생교화, 현재정화의 이념으로 불교총지종을 개종후 종단의 가장 큰 변화이며 총지종 중흥과 도약의 거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4차 한중일국제불교교류대회 북경대회 참석 불교총지종 일본·중국 밀교 교류 확대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중일국제불교교류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죽비소리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담 밑에 작은 웅덩이를 파 놓고 겨울 내내 동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그곳에 부어 두곤 하시다가 이른 봄에 호박씨 두어개를 심으셨다. 그 호박씨가 자라 잎과 줄기를 이루고 담위에 올라서 호박을 열게 하였다. 담 중간에 호박이 달리지 아버지께서는 나무 가지를 몇개로 지지대를 만들어 호박을 받쳐놓아 열매가 굵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을 보고 지켰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면서 존재진언과 육자진언을 염송하면서 순리와 평등심을 공부하고 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나 수승화강(水昇火降)이란 말이 있다. 내려만 갈려는 물 기운은 올려주고 올라만 갈려는 불기운은 내려서 물의 기운을 조절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씨를 심는 마음, 열매를 튼튼하게 맺도록 지지대를 세우는 마음처럼 조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 불자들은 진실한 저 언덕의 해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승정사 (밀인사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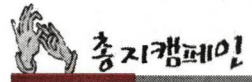
특히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정신문명의 폐해와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불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암 통리원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와 평화에 대한 문제해결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연과 생명의 보편적 철학과 교리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체대비의 사상은 물질문명의 치성으로 인한 정신문명의 파괴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며 특히 3국의 불교도들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26일 북경 천륜왕조호텔에서 열린 제4차 불교교류회의에서는 △제 5차 교류대회 서울개회 △환경사진전 2002년 서울 일본 전시회 △국제학술강연회 개최 △본 대회전 예비회의의 상설 화등을 결의했다.

27일 북경 영광사에 불교대표와 신도 1,500여명이 모여 진행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는 각국의 전통의식으로 법회가 봉행 되었으며 환경사진 전시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이번 대회에 불교총지종은 해암 통리원장 및 원승 총무부장, 자성 재무부장, 화령 법장연구원원이 참석하여 일본 중국과 불교교류와 특히 밀교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나누는 삶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금(金)가루를 넣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김밥에 금가루를 넣고 술에 금가루를 타고 생선회에 금가루를 뿌리고, 물론 그 가도 일반음식보다는 많이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 그 음식점 안은 앓을 자라도 없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금은 시간이나 타 물질에 의해 산화하거나 화학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 질량이 늘거나 줄지도 않은 불변 불멸의 유일한 물질이다. 그래서 그런지 옛 사람들은 금을 영생사상과 결부 시켰다.

고대 이집트왕 투탕카멘이 황금관속에 묻히고, 신라 초기 지배자들이 금관을 쓰고 금장식으로 몸을 싸 무덤 속에 묻힌 이유는 금과 같이 물이면 영생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불로 장수를 원했던 진시황이나 한무제를 비롯, 많은 중국의 왕들이 금가루를 단약(丹藥)으로 만들어 복용했다는 기록은 비밀비재하다.

중국의 약재 연구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보면 금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골수를 단단히 하며 오장(五臟)의 사기(邪氣)를 쫓는다고 했다. 하지만 본초강목의 저자인 이시진(李時珍)은 사람의 몸은 수분과 먹은 음식의 기운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무게와 질량이 불변하는 금을 체내에 축적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무모한 일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현대 의학도 이에 의의 없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금가루를 뿌리거나 혹은 섞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비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고대 이집트인이나 신라의 지배자들처럼 영생을 위한 것, 설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장사들의 장사속에 사람들이 넘어갈 것일까? 금가루가 섞인 음식에 대한 호기심? 하여간 음식에 금가루를 넣어서 팔고 그것을 사먹는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깝지는 않겠다. 그래서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을 사먹는 사람들은 아마도 평범함을 무시하고 남들과의 차별을 두어 그 차별로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차별이라는 의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품의 차별화, 서비스의 차별화 등으로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없어서야 할 차별이 더 많은 것 같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 출신지나 혹은 학벌에 따른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우리 집 옆집 차별 없이 우리 집 앞 쓰레기 치울 때 옆집 앞집에 나와 있는 쓰레기도 같이 치워주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 내 자식 남보다 차별 내게 키워 금박 입인 김밥 사먹는 사람보다도 어묵 넣고 단무지 넣은 평범한 김밥이라도 친구와 이웃과 나누어 먹는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금강법제종의 밀법도량-불교 총지종

아사리 법의 · 금가사 회향 점안 불사

무소유의 청정한 수행생활을 표상함과 동시에 일체대중으로부터 존경과 공양의 대상이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승한 불제자임을 나타내는 법의와 금가사

법의 금가사의 일대불사를 회향하며 아래와 같이 점안불사와 봉대식을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올리고자 하오니 많은 교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권선문 -

경에 이르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보시에는 다섯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지극한 마음의 보시요, 둘째는 손수 보시하는 것이요, 셋째는 믿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에 맞게 보시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불법(佛法)대로 하여 구해 얻은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 법공양(法供養)이요, 보시 가운데 제일이 법보시(法布施)입니다. 스승님을 위하여 공양하고 스승님께 보시하는 것은 곧 삼보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기! 밀법도량 총지종에서 봉행하는 법의 금가사 회향 점안불사에 보살님들께서 공덕복전 일구시기를 권선하오며 공양보시에 동참을 권하옵니다.

• 동참방법 : 당해 사원의 스승님께 공양보시를 접수하시거나 통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불교 총지종 통리원 TEL (02)552-1080~3

법의 · 가사 회향 점안불사 및 봉대식

- 일 시 : 총기30년(2001) 12월 2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부산 정각사 서원당

총기 30년 12월 1일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해 암 합장

사설

종단의 가사조성불사 회향에 즈음하여

지난 2월, 현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온 종단의 가사조성 불사가 연말이면 그 회향을 보게 된다. 가사조성불사는 창종 이후 가장 큰 변화의 발걸음으로서 종단의 일대불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만큼 승단은 가사조성 못지않은 굳건한 수행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금년 12월 말경이면 가사조성을 회향하는 '가사집안 및 가사봉대불사'가 봉행된다.

이 불사를 통해 종단의 가사가 불제자의 법다움을 보여주는 법의(法衣), 계행에 어긋나지 않는 수행의(修行衣),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복전의(福田衣)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종도들이 이번 가사에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교계의 여러 종단의 승직자 보다 철저한 수행을 행하고 있는 우리 스승님들이기에 이번 가사조성불사는 시의적절한 불사요, 스승다움에 부합되는 일대불사라 할 수 있다.

본래 가사는 시주에게 얻은 낚은 옷을 꿰매어 몇가지 색을 섞고, 여기에 어두운 색으로 물을 들여서 입었던 것이라고 한다. 바로 무소유와 청정수행의 상징이었음을 말해준다. 가사는 청정한 수행생활의 표상이며, 세간사람들의 존경과 공양의 대상인 동시에, 수행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불사 본래의 의미를 더욱 살리는 법다운 가사, 수행자다운 법의가 탄생되기를 바란다. 또한 가사조성회향에 교도 보살과 각자님들의 동참을 기대하는 바이다. 여법한 불사는 우리 교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금년에 조성되는 법의와 가사의 의미가 단지 스승님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스승님들은 중생구제의 커다란 사명감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위해 끝없는 정진을 행할 것은 물론이요, 교도 보살과 각자님들은 불법에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는 수행과 대승보살로서의 실천을 배가토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가사불사회향을 맞이하여 교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스승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승님의 법의(法衣)에 환희심을 일으켜 공덕 복전을 짓는 보시행이말로 으뜸가는 공양행이라 할 수 있다. 보살 각자님들의 공덕행과 대화향을 권선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회향하는 날까지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드리며, 수승한 법의로서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이 충만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승단과 교도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굳건한 수행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단 발전 초석은 교구회의 활성화로부터

종단의 발전은 포교에서 시작되어 포교로 끝을 맺는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우리종단은 정통밀교를 표방하는 종단이다. 타 사찰과 다르게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언인 옴나미반베흠을 본존으로 하는 진언수행 사원이기에 포교에 대한 어려움은 더 할 것이다.

총지종단은 현교의 일반사찰처럼 총무스님, 재무스님, 際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님들 각기 다른 소임을 맡아 사찰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생활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총지종단의 스승님들은 사분정진(하루에 4번 불공) 진언수행을 하고 또 사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도 상담과 기타 際불사 가정불사등 일인사역 아니 일인사역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하루에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달에 1번씩 각 교구별로 교화연구회 즉 교구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은 스승님들의 교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교구회의 시간은 각 사원의 스승님들이 모두 모여 각 사원에서 일어난 모범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교화방법에 대한 의견과 내용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각 교구회의의 결과물들이 모여 종단의 발전의 시금석과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막중한 교구회의가 월례적이고 관성적인 교구회의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의로 자리잡아야 종단의 大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은 각 교구회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렴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각 교구회의의 활성화로 종단발전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원의회, 전당건설,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법의, 사원신축, 학교부지매입등 주요안건 다뤄



불교총지종 원의회 및 전당건설과 재단이사회가 지난 11월 27일 이사회 전원에서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원신축과 법의 불사의 세부 일정 및 의결에 대한 문제, 동해중학교 부지 매입 기준, 총기 31년 주요 불사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해암 통리원장 이날 "통리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1년여 종단의 불사의 세부 일정 및 의결에 대

종령님을 위신한 여러원로스승님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종단은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조급식 조급식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날 원의회 전당건설에서 신축사원 건설에 대한 기간 보고가 있었으며 올 12월 24일 착공을 결의하였다.

또한 종단 법의 봉대불사는 49일 가사불사 원만회향 불공이 끝나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부산 장가사에서 성대하게 봉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창종 3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여 기념행사 기획단 구성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영상포교를 위한 새로운 도약

법당과 방송시설 갖춘 관악사옥 기공식



제38회 불교텔레비전 이사회가 지난 1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1년 월별실적과 주요 부채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으로 불교텔레비전 사옥신축과 석주 석정스님의 선서화전에 대한 건이 있었다.

이날 보고사항에서 불교텔레비전 총부채에 대한 상황계획에서 2004년까지 자산관리 공사차입금을 상환하고, 구공사 차입금을 광고료로 상계처리 한국통신 분배방송료도 50% 공과비, 대체와 금호전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상환도 기업 광고비로 대체하여 어느 정도 불교텔레

비전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관악구에 신축사옥(지상6층 지하2층)을 건립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법당과 방송시설 신축공사를 결의하여 지난 21일 불교텔레비전(bm)신축 사옥에 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서 성우회장은 "이 자리는 참으로 기쁜 자리이며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영상포교의 불교텔레비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이제 불교텔레비전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영상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해암 통리원장 및 석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각 교구 소식

서울경인교구

▲서울 경인교구 교화연구회가 지난 13일 정심사(주교 진일심)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으로는 12월24일 창교절 기념품의 건, 추계강원에서 제기된 장학회의 건,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 활성화의 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었다.

장학회 창립에 대한 의견중 장학회의 취지를 넓게 하여 불우이웃과 소외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장학회 창립을 위한 서울 경인교구 대표단으로 혜정(관상사 주교), 인법계(밀인사 전

수), 환수원(벽룡사 주교) 세분을 선출하여 이후 장학회 창립을 위한 논의는 대표단에게 위임을 하였다.

또한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각 사원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후 다양한 행사와 사업계획으로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 활성화를 준비중이다.

▲지난 10월28일 총지사(주교 법등) 복지화스승님과 11월13일 법천사(주교 시정) 모회심 스승님에 대한 기제가 각기 있었다.

평소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교도들과 유족들이 참석하여 열반 스승님의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생전에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부산경남교구

▲지난 11월15일 정각사에서는 부

산경남교구 교화연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9회 추계강공매 총정전연구회에서 제기된 장학회 건설과 기금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퇴직스승님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 및 제반 교화 활성화에 대한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대원(덕화사 주교) 부산경남교구 총무스승님은 "교구회의가 보다 심도 있고 건설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선의 스승님들이 교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자칫 빠지기 쉬운 메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언행자로서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한편 부산경남교구는 오는 12월28일 정각원 열반 스승님에 대한 교구 및 신정회 합동 회의가 정각사에서 열린다.

이기향 교수 인터뷰



이기향 교수

이기향 교수는 99년 법화경에 나오는 "영취산의 환희"라는 주제로 불교미술의사정시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불법을 구하려고 구도하는 모습을 주제로 큰 전시회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한국에 불교의상박물관을 세우고 싶다는 원력을 보였다.

교수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창작의 고통으로 인한 병은 모든 예술가에게 주어진 일종의 직업병이지요. 몇차례의 전시회 준비와 작업으로 날을 새는 일이 많아 건강이 많이 안좋아졌어요.

고 그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의와 가사를 제작하는데 제일 중요했던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원장대성사님의 사상과 교상을 표현하는게 가장 어렵고 또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심밀을 표현했고 육형을 나타냈으며, 총지종의 교상을 표현하고자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색상 또한 밀교경전에 기반하여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법이나 가사에 대한 고증과 문헌에 표현된 자료가 불충분한데도 왜 불교에 집착하는지요?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 잘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것도 깊지 않고요. 불교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어느날 부처님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시드

종교적인 경건함과 현대적 예술의 조화 필요

이번 총지종 법의 제작에 가장 중심에 두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첫째는 불교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불교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어렵고 현대와 동떨어져 있는 어찌면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이러한것들을 깨어있는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영상포교의 불교텔레비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이제 불교텔레비전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영상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해암 통리원장 및 석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보고사항에서 불교텔레비전 총부채에 대한 상황계획에서 2004년까지 자산관리 공사차입금을 상환하고, 구공사 차입금을 광고료로 상계처리 한국통신 분배방송료도 50% 공과비, 대체와 금호전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상환도 기업 광고비로 대체하여 어느 정도 불교텔레

비전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관악구에 신축사옥(지상6층 지하2층)을 건립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법당과 방송시설 신축공사를 결의하여 지난 21일 불교텔레비전(bm)신축 사옥에 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서 성우회장은 "이 자리는 참으로 기쁜 자리이며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영상포교의 불교텔레비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이제 불교텔레비전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영상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해암 통리원장 및 석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리구요. 이런말이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구. 한국적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교적인것이지요. 이제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 불교가 되었고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합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교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불교는 무엇이며 이번 작업의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증학자가 아닙니다. 옛 문헌을 뒤져 표현하는 것은 다른 영역의 학자들이 할 문제이고 저는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서 어떻게 하면 불교가 가장 세련되고 세계적인가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종교 아니 불교하면 무겁고 사람과 동떨어져 산속에서 수행하고 법부는 접근할 수 없는 느낌이 강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웃으며 모던하게 쉽게 풀어내려고 머리를 사발한 스님을 생각하는데 총지종은 재가종단이고,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종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

적 참여분위기가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또한 매년 실시된 대북 지원사업 및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 대법회 봉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히 지난 10월31일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초청 종단협의회 이사장 만찬에서 제기된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대법회를 종단협의회 주최하고 조계종단이 주관하여 범불교

종단협 이사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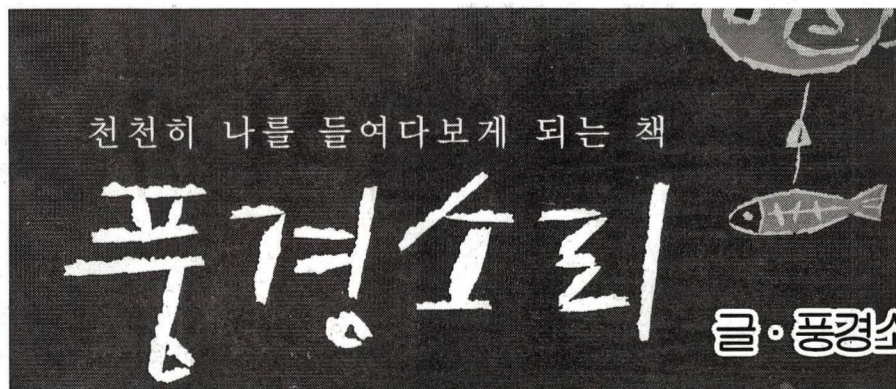
월드컵 성공기원법회 및 대북지원사업 추진

종단협의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4차 한중일불교우호 교류회의 결과보고와 대북지원사업 및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 대법회 봉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히 지난 10월31일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초청 종단협의회 이사장 만찬에서 제기된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대법회를 종단협의회 주최하고 조계종단이 주관하여 범불교

적 참여분위기가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또한 매년 실시된 대북 지원사업 및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 대법회 봉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히 지난 10월31일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초청 종단협의회 이사장 만찬에서 제기된 월드컵 성공개회 기념대법회를 종단협의회 주최하고 조계종단이 주관하여 범불교



천천히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책

풍경소리
글·풍경소리 / 전각·정병례 / 비소설 / 7000원

즐거운 사색, 깊어가는 가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를 감동시킨 이야기, 풍경소리는 산사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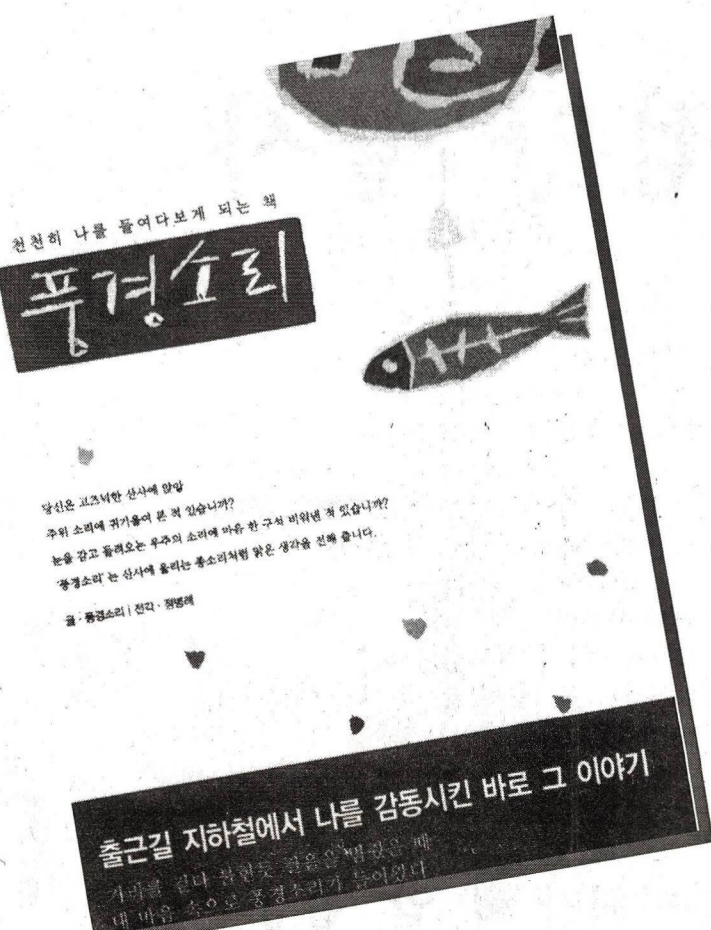
마음의 문을 열면, 복잡한 도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샘터

www.samtoh.com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115

전화 02-763-8961~6 팩스 02-741-7270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불교그림들의 기원과 쓰임새

불화는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탑이나 불상, 불경등과 함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절(寺刹)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불교회화(佛敎繪畵)를 줄여 불화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

좁은 의미의 불교회화는 절의 법당 등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인 존상화(尊像畵)와 넓은 의미에서는 불교도나 이교도 등을 교화하기 위한 갖가지 그림과 불상을 모신 전각에 장엄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단청(丹靑)을 하고 벽에는 벽화를 그려 종교적인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말한다.

현존하는 벽화로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벽화, 중국 돈황 석굴벽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기원전 2-3세기 무렵부터 불화가 조성되었으리라 보고있다.

울장인 <유부비나야잡사>권 17에 보면 붓다시절 급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그림으로 장식하고 싶어하자 붓다가 그 내용을 일러주었다. "문 양쪽에는 문둥이를 든 야차를 그리고, 다음 결로 한 면에는 큰 신룡 변화도를 그리고, -중략- 처마 밑에는 본생의 일을, 불전문 옆에는 꽃다발을 든 야차를 그린다."

이와같이 사원을 장식하는 장엄화(莊嚴畵)로 비전상(飛天像) 및 진귀한 새와 동물그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포함한 불교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일체의 그림을 통틀어서 불화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화도 조성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속저의 황룡사 벽화는 진짜인줄 알고 새가 날아들어 들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755년 조성된 <화음경>사경 첫머리에 남긴 보광명전변상도와 140여점이 남아있는 고려시대 불화는 그 당시 뛰어난 솜씨를 오늘날에 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교의 어려운 교리를 일반대중에게 쉽게 전달해 주고자 그린 불화로서 먼저 부처님의 일대기(一代記)를 그린 팔상도(八相圖),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사왕도(十王圖)와 감로왕도(甘露王圖), 착한 일을 하면 서방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래영도(阿彌陀來迎圖), 귀중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바른 길을 섰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등 이는 훌륭한 교화용

불화이다. 불법을 찾아 절에 가면 가장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석가모니불의 모임을 화상으로 담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화음경의 세계를 그린 화음탱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주제로 한 극락회상도(極樂會上圖), 육도 운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려는 크나큰 원력을 세우신 대원본존(大願本尊)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등은 예배용불화(禮拜用佛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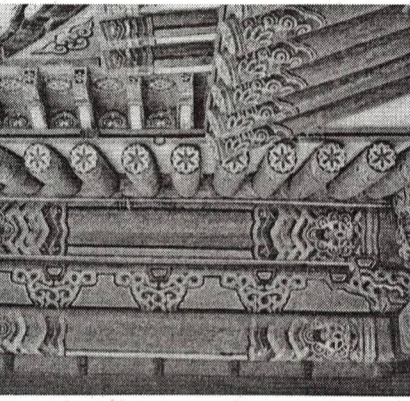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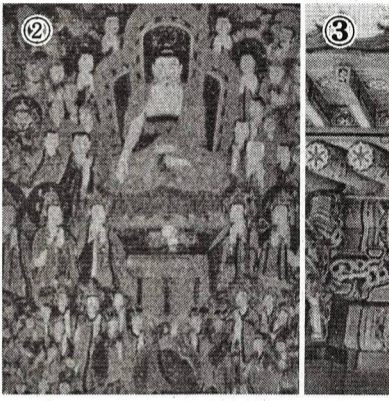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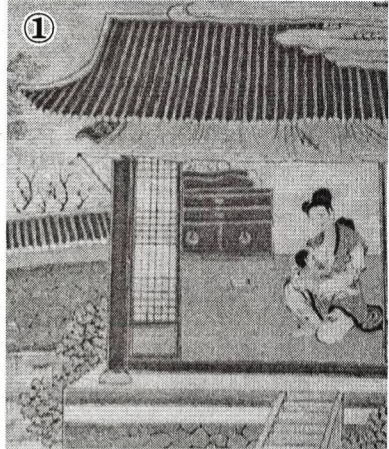
장엄하다는 것은 단순히 꾸민다는 뜻보다는 종교적인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천정이나 기둥의 벽면에 그려진 단청, 벽화등을 장엄용불화(莊嚴用佛畵)라 한다.

그 외 스스로 만법의 근원을 자기의 마음으로 깨달아 부처와 같은 지혜를 갖추어 참된 진리의 삶을 살고자하는 선화, 묵묵한 소의 과묵함과 힘 없는 정진력으로 불법에 이르는 수행자에 비유한 십우도가 있다. 그림4 참조.

만다라는 밀교의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내면세계와 부처의 법신인 진실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 같은 용도로 조성된 수많은 불화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선(善)함만을 추구하는 예술이 아니라 불교적인 이념에 입각한 주제를 그리는 성스러운 예술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불화는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내어진 그림이 진정한 불화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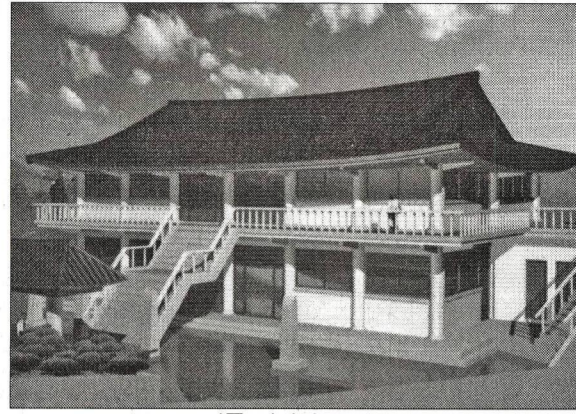
- 그림1 (부모은중경중) 乳哺養育恩(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
- 그림2 (영산회상도) 석가모니 본존을 중심으로 보살중과 제자들과 신중들, 청법중이 동글게 한 모임을 만든 회상. 절제된 배색과 세련된 선묘로 화면의 조화를 이루며 부처와 중생이 하나되는 세계를 장중하게 형상화한 명품이다.
- 그림3 (단청) 모로단청-집의 벽.기둥,천장 같은 데에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여러 종류중 하나
- 그림4 (십우도제4) 소를 잡았으나 아직 뜻대로 다루지 못하고 채찍을 가하는 득우

<윤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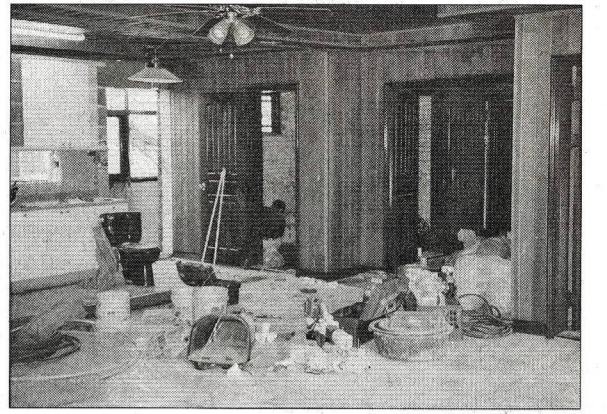


“불화는 불교의 이념과 주제를 정확히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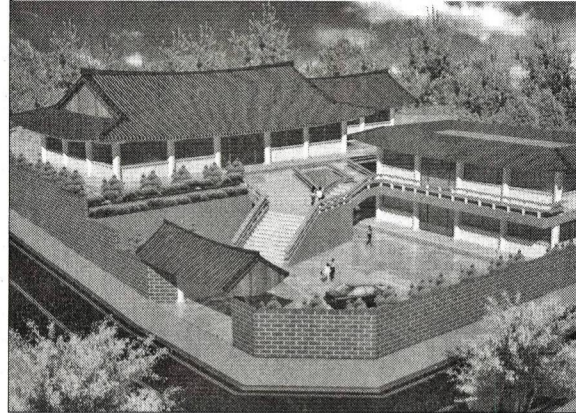
사원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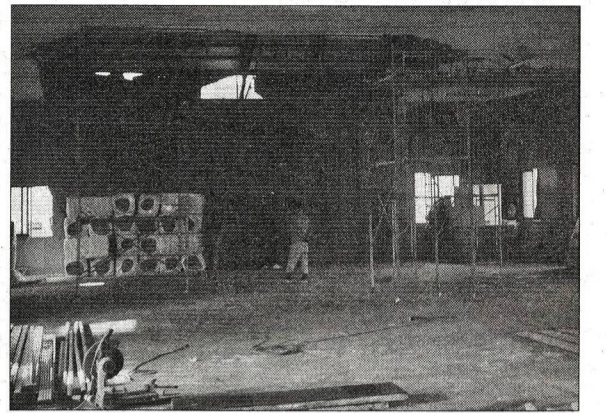
광주 법황사 조감도



정혜서원당 사택 수리



전주 흥국사 조감도



총지사 사원 수리의 모습

해암 통리원장 취임으로 각 사원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 작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신축사원으로 광주 법황사(주교 법수원)와 전주 흥국사(주교 밀공정)는 가설계를 마치고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2002년 착공을 한다.

한편 총지사(주교 법등)는 2층 서원당을 3층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여 금년 완공예정이다. 불단 이설공사는 총

기 31년 2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부경 정혜서원당(주교 지성) 새로 매입한 건물에 사택수리를 마쳤고 서원당 공사는 총기 3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관성사(주교 해정)는 매입부지에 법당 및 사택,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사택과 주차장 공사는 올해로 마치고 서원당은 총기 33년에 착공예정이다.

불교 에세이

세상에 고민 없이 불안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된 자의식에 휩싸여 스스로 죄인이고 못나이라며, 불가능하며 뒤로 물러나고 움츠러들기에 그 고민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라는 허상에 감쪽같이 속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떳떳한 주인이고 본래 청정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내용처럼 마치 여우를 무서워해서 동물

크나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부처님의 자식이요, 제자가 무기력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려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자의 새끼가 고양이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백수의 왕인 사자는 때가 되면 그의 굴에서 나온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사방을 살살이 둘러본다. 그런 다음 세 번 포효를 하고 나서 먹이를 찾아 당당하게 출발한다."

(중지부) 이것이 불자의 모습입니다. 무능력하다구요? 천만에요. 도망치면 더 두려운 법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

사자처럼 당당하게!

들이 피하는 줄 안 호랑이가 숲을 여우에게 내준 풀인 셈이죠.

우리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물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교되어지고 물든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껏 밖으로만 구걸하려 다녔던 셈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그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보배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출가 고행하시고 마침내

하는 쪽을 계속 외면하다 보면 그 무서움이 없어지기보다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무서움을 느끼는 쪽으로 과감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무서움의 대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자꾸 외면하려 하니 그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극복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뭐 이런 일 갖고 내가 고민했나 할지도 모릅니다.

추운 날씨라고 마음마저 움츠러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시원함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양동호 법사>



김경현 성형외과

Dr. Kim's esthetic plastic surgery

약 력 : -가톨릭대학 의학과 졸업

수술전문 : 주름주사 및 레이저 박피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스텝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

TEL 02-332-4456

FAX 02-332-4457

www.pskkh.pe.kr

진료시간 : -평일 10:00~6:30

-토요일 10:00~5:00

-휴일 예약진료

지상설법

용맹정진과 실천만이 참된 길이다



경원 정사
(부산 정각사)

신의 성품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을 발현하는 길은 기도와 정진, 참회를 부지런히 실천하는 가운데 한 순간에도 헛됨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의 뜻을 흘려야 합니다.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돌아 보고,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불보살의 도움으로 화를 줄이고 복을 더할 것을 비는 종교심이며, 정진은 부지런히 선을 향한 활동이며, 참회는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청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술한 화제와 사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도박촌으로 바뀌고 한탕과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땅을 흘리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예금통장에 잔금없이 돈달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으로 도둑질 말고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노력없이 남의 물건을 갖는

들새가 없이 일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는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일 없이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백장선사는 일일불작(一日不作)하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 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날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스승이 그 노구에도 일하는 것이 하도 민망해서 호미를 감추어 버리자 스승은 하루를 먹지 않고 굶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강철 왕인 카네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근본목적인 번뇌해탈로써 행복한 삶의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천은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

천하지 않는다면 그림 속의 떡을 아무리 쳐다봐도 배가 부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불교는 아는 것 만큼 실천하고 수행해서 지혜를 체득하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설법을 마칠 것입니다. 용맹정진하시어 해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무슨 수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려운 것 같고, 시작했으니 복이나 지어서 더 잘 살기 위해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처럼 성불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이렇게 풀이하여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중생들이 성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려고 노력하므로써 그 사람은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억겁이라는 세월이 지난다해도 저절로는 성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은 중생들 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인과의 정리 불성을 발현하는 길은 기도와 정진, 참회를 통한 바른 삶의 실천노력이 필요

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인과의 정리입니다. 그러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남이 심을 것을 빼앗으려 해서도 안됩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합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고 더 많이 뿌려 노력한다면 탐스러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흘리지 않는 곳에는 성공이라는 꽃이 필 수 없는 것이고 행복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위대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력의 댓가이며, 필연의 결과입니다. 이러니 노력없이

것을 큰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사분율』(四分律)에 보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 만약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진다면 바라이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사회에서 격리시켜 감옥에 보내지요. 이러니 인생이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며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결코 쉽게 노력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모든 성공의 길잡이입니다. 일하는, 즉 노력하는 즐거움은 인간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신성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시간은 무엇인가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때입니다. 눈코

힘껏 노력하면 공명이 발견된다는 좌우명으로 살면서 부와 명성을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팔홀리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의 성품은 수행 정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은 밭을 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천만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 곳에 성공의 꽃이 필 수 없고, 행복의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누가 도와준다거나 외부적인 조건보다 스스로의 노력인 것입니다. 성공의 길에 기적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자기의 현재도 없는 것이요, 미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천가지 만가지의 이론을 모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배고픈 밤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즉 실천이 없다면 그는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

생활속의 밀교(법경)

점(占)과 밀교의 방편(方便)

점(占)은 오랜전부터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해왔다.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운세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대소사(大小事)가 있거나 우환이 닥칠 때, 결혼과 큰 사업 등을 앞두고 잊지 않고 점집을 찾는다.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바램이기도 모른다.

점(占)은 기원전 4천년경 고대 중국과 이집트, 칼데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주로 종교의식과 의술(醫術)에 쓰여졌는데, 점을 보는 방법으로는 천체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占星術), 숫자의 계산이나 수의 변화를 통해 점치는 수점술(數占術), 자연현상을 통해 점을 보는 자연관상점(自然觀象占) 등이 사용되었다.

대개의 경우 무당이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점이 행해지나, 더러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우리 진언행자들에게 점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불교인장에서는 점을 비불교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밀교에서는 점을 방편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밀교가 재래의 토속신앙을 수용, 습합(習合)하여 다양한 방편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점성술과 그에 관련된 경전의 존재다. 석존재세시나 초기불교시대에서 점술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것이 밀교에 의해서 더욱 다양한 방편으로 전개되었다. 『대일경』은 밀교의 방편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리심(菩提心)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大悲)를 근(根)으로 하며, 방편(方便)을 구경(究竟)으로 한다.

토속신앙의 수용 방편으로... 그러나 방편은 방편일뿐

는 보통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점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는 관습(慣習)으로 전승되면서 누구나 쉽게 행하여졌던 점이다. 그저 재미삼아 찢던 심심풀이 점이었다. 어렸을 적 누구나가 환변죽(환변죽)을 걸었던 것으로, 손바닥을 펼쳐놓고 "행운이 길다" "재물이 많다" "적다" 하며 서로 손금을 보아주었던 지난 추억들에서 고개가 끄려져진다.

점복(占卜)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일상의 모든 현상들이 점복(占卜)의 범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 자연현상, 관습이나 놀이에서부터 동식물과 사람까지도 미래를 점치는 데 이용되었다. 자신의 운명과 앞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이 얼마나 그 근원적인가를 짐작해 한다.

점은 오늘날 비과학적·비합리적이거나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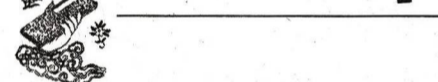
밀교수행의 목적은 증심성불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왜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방편이 방편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구경에는 성불로 귀결됨을 역설하고 있

기 때문이다. 구경성불을 위한 과정이 곧 방편이요, 방편은 성불을 위한 과정의 방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경 방편은 곧 구경 성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밀교는 점을 위시한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 관대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때론 적극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편이 구경이라 할지라도, 방편은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방편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일뿐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운세나 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방편은 나의 신행(修行)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그저 참고만 할 뿐이다. 좋은 방편으로 삼으면 약이요, 집착하면 독이나 다름없다. 방편으로 인하여 수행의 본의(本意)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법정원 법경>

아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광명진언과 실지정진이란?

광명진언(음 아모가 비로자나 마하무디라 마니반데 지바라 파 라비타야 흠)의 공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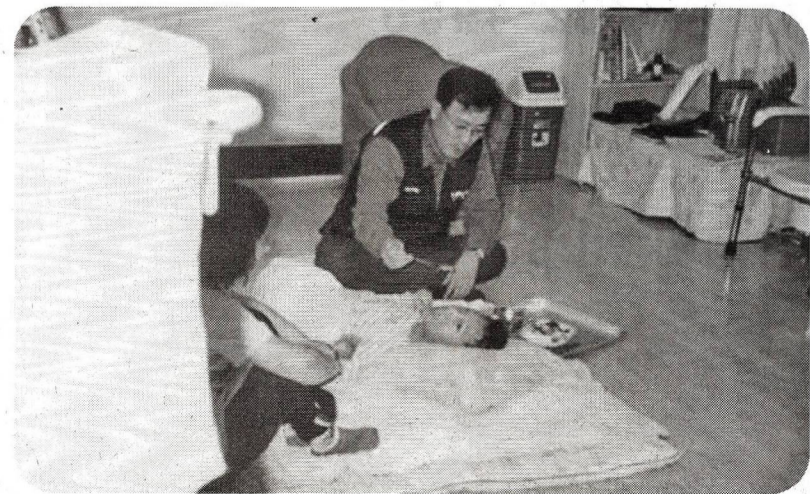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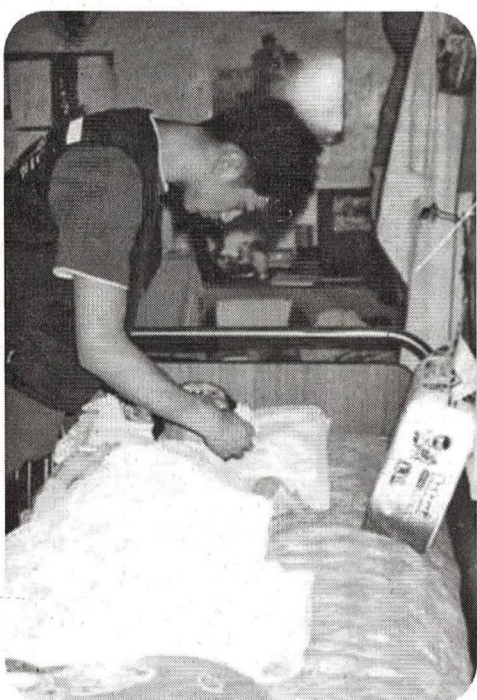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법신의 광명으로 무명과 업장을 걷어내고 자성의 밝은 본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수행 중에 장애가 생길 때, 과거의 습관이 업장을 조복받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잘못을 참회할 때 이 진언을 합니다.

원효대사는 유심안락도에서 광명진언에 대해 "만일 어떤 중생이 어디서든 이 진언을 얻어 들되 두번이나 세번, 또는 일곱번 갖게 스쳐 지나치기만 해도 곧 모든 업장이 사라지게 된다. 만일 어떤 중생이 십악업과 오역죄와 사중죄를 지은 것이 세상에 가득한 먼지처럼 많아 목숨을 마치고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이 진언을 108번 외운 흠모래를 죽은 이의 시신 위에 흩어주거나 모 위나 탑 위에 흩어주면, 죽은 이가 지옥에 있거나 아귀, 아수라, 축생 세계에 있거나 그 모래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

진언의 본원과 광명진언을 외운 흠모래의 힘으로 죽시 몸에 광명을 얻게 되고 모든 죄의 업보를 없애게 된다. 그래서 고통받는 몸을 버리고 서방 극락세계에 가게 되어 연화대에 화생할 것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실지정진(悉地精進)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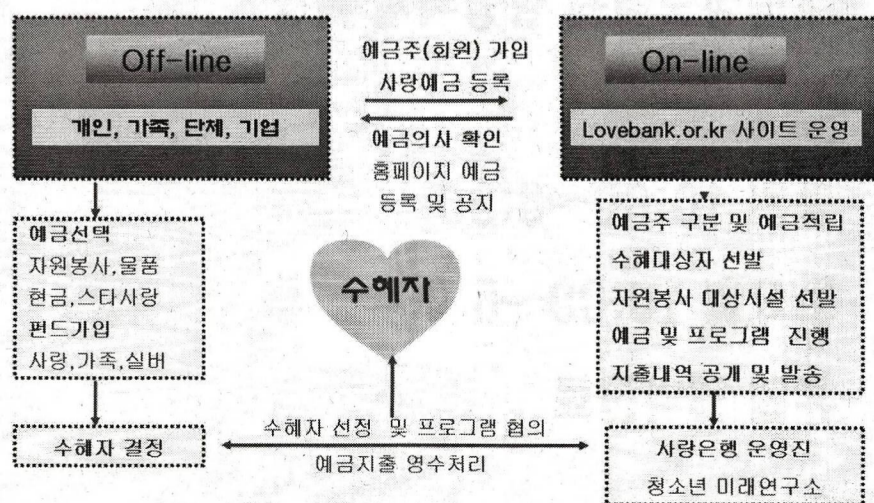
실지(悉地)란 뜻은 일반적으로 쓰는 사실(事實)의 실제(實際)란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종지중에서는 실지(悉地)를 개개인이 총지서원(總持誓願)함에 의해 성취한바 하나 하나의 묘과(妙果)를 말함인데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한다는 뜻이 되며 정진(精進)이란 용맹심(勇猛心)으로서 한결같이 수행(修行)하기로 자기 마음을 체질적하며 진취(進取)하여 그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정진(悉地精進)이라면 서원한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또 성취된 후라도 그 공덕(功德)이 영구 지속 되어 달라고 부처님께 진언으로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 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종교포럼

종교간의 불화와 조화



이찬수

(종교학, 강남대 교양학부)

이 자료는 지난 11월 28일 동산반 이회 대법당에서 열린 불교포럼 자료 집중 이찬수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의 대상이 먼저 거기에 자명하게 있기에 그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주체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기에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체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만큼만 실재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행위는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실재도 다양하다는 뜻이 된다. 같은 말을 듣고도 그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반응이 다양하다면, 사실상 그렇게 경험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이 된다. 다양한 경험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다양한 실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자연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형적으로, 그것도 아주 부정적 내지는 파괴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있는 데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 세계이다.

종교들의 불화는 왜 생기는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경험이 다양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은 이러한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을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정말로 경험이 다양하고, 그렇게 경험한 만큼 그 경험적 실재가 내 앞에 그 실재로 현전하는 것이라면, 그 경험을 넘어서는 궁극적 실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생긴다. 불자가 생각하는 궁극적 실재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궁극적 실재가 다르다. '궁극적 실재'이라고 생각되고 말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다양한 응답'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보편성을 주장한다.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어떤 종교든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바로 모든 종교들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만 보편성을 주장하는 까닭에, 보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특수성간의 대립만 남는 꼴이다. 너도나도 거창한 말들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거창함이 실현된 적은 없으며, 도리어 그 거창한 진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끼리끼리 즐기만 하는' 가장 속좁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현실적 종교들의 세계에서는 보편성은 커녕 자기 중심적 특수성만 판을 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교적 우주관을 떠올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을 떠올리는 등 대부분 자기 식의 종교관을 연상할 뿐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모른다. 저마다 자신의 종교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세계관을 기초로 두고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틀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종교들의 세계는 깊고 넓지만, 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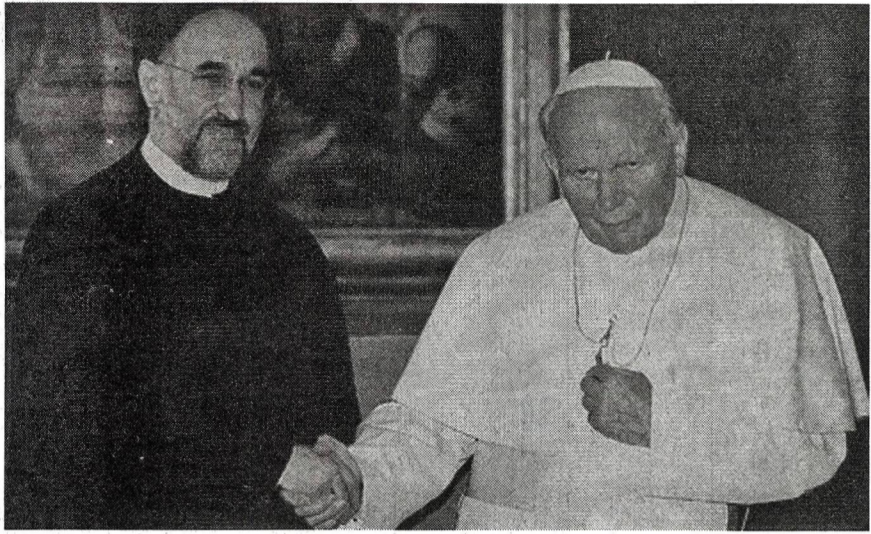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집단들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요소를 갖거나 불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교적 요소를 갖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종교라는 것을 그 외적 차별성에 따라 상호 대립

어는 정도는 옳지만 역시 내가 최고!" 하는 식의 자기우월적 포용성을 보이기도 한다(포괄주의, Inclusivism).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종 벌어진다. 가령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그리스도교 전통이라면서도, 한편에서는 서로 자기 종파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개신교의 종파 안으로 가도 또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런 입장은 작게는 의견 대립 정도로 나타나지만, 크게는 나와 너, 흑과 백, 선과 악 등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분리시키면서 거창한 문명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들 어갈 수 없는, 상호 대립적인 전제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파리가 어항 유리에 붙어 유영하는 금붕어를 구경하듯이, 그저 비참 여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상대 종교를



자기중심적으로 보편성 주장은 대립의 씨앗 내 것이 중요하면 남 인정하는 화합정신 필요

한 인간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인 한, 언제나 더 나은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참 종교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저쪽에도 다른 모습으로 있다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지상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종교들'(religions)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을 하나, 둘, 셋,

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런 물음들이 생겨난다: "과연 어느 종교가 참된/최상의 가르침일까? 과연 종교적 진리는 하나인가? 여러인가?" 이러한 물음들 앞에 사람들은 흔히 내 종교와 네 종교를 분리·비교하고서, "다른 종교들은 오류!"라는 식의 배타적 태도를 보이거나(배타주의, Exclusivism), 그보다 이해심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타종교들도

"물상화"(物像化, reification)하고 차별적인 모습만 보아온 탓이다.

그러나 그 차별적인 의견만으로 이른바 종교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적 현상들은 불교, 그리스도교 등의 이름으로 별도 분리되기에 너무나 다양하고 끝없이 변화하며 유지되고 생성된다. 종교를 어떤 항구적인 본질로 규정하기에는 내적이나

외적으로 무한히라든지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런 물음 앞에서 종교사 학자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의 입장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서, 종교들을 '명사'로서가 아닌, '형용사적'으로 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한다.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같은 명사적 표현보다는 '불교적', '그리스도적', '이슬람적' 등의 형용사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다. 비참여적 관찰자적에만 보일 법한 외적 차별성보다는 그 종교 안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의 내적 마음, 생동하는 삶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종교를 사물화시켜 놓고 보면 그저 '사물'로서만 보일 뿐, 종교의 역동성, 그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 바탕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 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의 판단 역시 핵심에서 빚겨간 것이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종교의 내적 측면, 즉 '종교적' 가치에 중점을 둘 때, 자기우월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자에게서도 이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만큼 대립을 넘어 타자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문자에, 제한적 경험에 사로잡힌 근본주의를 깨고 정갈 그 근본으로 도달할 때, 종교간의 갈등과 불화는 평화와 조화로 전환한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아니 내가 너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내가 너에 대해 배우는 열린 자세로 너로 하여금 나를 배우도록 참으로 도와줄 때가 종교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날 때인 것이다. 그것이 불교를 불교되게,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그리스도교, 이슬람되게 해주는 자리(自利)인 것이다.

정보 다이제스트

◆숯-2600년전부터 활용, 구멍 작을수록 상품
숯이란 한마디로 "재가 되기 이전의 탄소덩어리". 숯의 까만색은 탄소성분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태워서 생기는 재색이 아니다. 영어로는 "차콜(charcoal)"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약으로 먹는 것을 우연히 서양인이 먹어보고 몸이 좋아져서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china)"와 좋다는 의미의 "쿨(cool)"을 합성해 단어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선 약 2600년 전부터 숯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력으로 정월 보름 다음날, 즉 16일을 "귀신날"이라 불렀고 이 날은 뽕나무로 만든 숯에 불을 붙여 귀신을 쫓기도 했다.
뽕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연료용으로만 쓰는 성형탄(成形炭) 등도 숯의 일종이지만 탈취,정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무를 통째로 공기가 차단된 가마에서 구워낸 목탄(木炭)을 말한다. 만드는 온도에 따라 약 섭씨 6백도의 가마에서 구워낸 것을 흑탄, 1천도 정도에서 구운 것을 백탄이라고 한다. 숯은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림당 내부 표면적이 3백 평방미터, 즉 웬만한 테니스 코트장 넓이만큼 무수한 구멍을 가진 다공성이다. 목탄을 "활성탄(活性炭)"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구멍이 미생물

의 주거공간이 되어 유해한 세균들을 흡착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구멍이 작고 많을 수록 좋은 목탄이라 할 수 있다.
◆자주 안아주면 머리 좋아지고 정서도 안정
5감 중에서 피부를 통한 촉각이 뇌의 발달 특히 감정 및 정서의 뇌 발달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피부는 뇌와 같은 '외배엽에서 나와 발달하기 때문에 뇌와는 형태간이며 "표면에 있는 뇌"라고도 불린다. 또 뇌와 풍부한 신경회로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까닭에 피부에 가해지는 아주 약한 자극도 뇌에 잘 전달된다. 사람이 없는 관계에서 피부는 차가워지고 굳는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빨린 색소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와 피부가 검어지고 두드러기나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매일 목욕을 해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목욕할 때 적절하게 피부를 문지르거나 더운 물, 찬물로 감각 수용체를 적당히 자극해 준다. 특히 부모가 아이와 목욕을 같이 하면서 아이의 피부를 씻겨 주며 사랑과 격려의 대화를 나눈다. 아이의 머리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가슴으로 포옹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져 물체를 구별하는 훈련도 촉각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손을 잡아보고서 상대방의 감정상태를 추정해 보는 훈련은 피부감각 수용체의 발달은 물론 우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스킨십은 뇌 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는 훈련이다.

총지 등의 보금

폐암의 치료

폐암의 치료방법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의 세 가지 기본방법이 있다. 이중 화학요법은 불행하게도 유방암, 고환암, 육종 등의 고형암에서와 같은 치료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최근에는 보다 효과적인 병합요법의 개발로 이전보다는 비교적 향상된 치료성적을 얻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증상완화에 대한 효과는 대략 10% 정도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이론이 많다. 반면 수술적절제는 폐암치료에서 유일한 치료방법이나 실제 완전한 수술적절제가 가능한 환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술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 등 보조요법을 시행하거나, 수술 전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다.

◇수술 절제
우리 나라에서는 폐암 진단 후 수술을 권하면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환자가 많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데 오랜 관습으로 악을 선호하며 암에 칼을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된 인식이 환자들의 치료가 어렵게 한다.
그의 한약이나 민간요법들도 정신적으로 약해진 환자와 가족들을 혼돈 시키기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방법은 폐엽 절제술이며, 종양이 있는 폐엽을 완전히 절제해 내고 가슴속의 림프절을 완전히 박리 해 낸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흉부외과 교수 안 옥 수>

"노인을 위한 밝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http:// ysswc.hihome.com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온갖 고통과 인내속에서 선진한국을 창출해낸 자랑스런 어른임을 인식하고 '노인공경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노인 모시기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효의 사회화운동'에 앞장섭니다.

후원회원안내
기금후원 : 한빛은행 122-138021-13-202
결연후원 : 무의탁노인 등을 1:1로 결연, 매월 후원(월 1만원 이상)
물품후원 : 도서, 의류, 가구, 식료품, 반찬 등을 후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60-3 | 전화 (02)564-9294, 558-8771 | 전송 558-8772

노인주간보호사업
사업명: 노인주간보호사업
요일: 매주 월-금
정원: 30명
대상: 중증이나 경증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내용: 민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물리치료 및 의뢰서비스 제공, 급식 및 간식 제공, 취미활동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으로 신체적, 정서적 기능 강화

재가복지사업
사업명: 방문 물리치료
요일: 매주 화요일
횟수: 주1회
시간: 14:00-17:00
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를 선정, 지속적 방문 치료
사업명: 결식노인무료급식
요일: 매주 월-금
정원: 주5회
시간: 12:00-13:00
내용: 무료로 점심 제공
사업명: 식사배달서비스
요일: 매주 월-토
정원: 주5회
시간: 12:00-13:00
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본 센터에 내방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중식 제공
사업명: 밀린잔치원서비스
요일: 매주 금요일
정원: 주1회
시간: 13:00-16:00
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반찬만들기가 곤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주일분 밀린찬을 제공
사업명: 가정봉사서비스
요일: 매주 월-토
정원: 주5회
시간: 13:00-16:00
내용: 청소, 빨래, 취사 및 말벗 서비스 제공
사업명: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요일: 수시
정원: 수시
시간: 수시
내용: 무의탁노인과 후원자를 1:1로 결연하여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사회교육사업
사업명: 글씨교실
요일: 매주 금요일
횟수: 주1회
시간: 10:00-12:00
내용: 기초 한글, 산수 교육
사업명: 노래교실
요일: 매주 월요일
횟수: 주1회
시간: 11:00-12:00
내용: 트롯 및 최신 유행가 부르기
사업명: 민요교실
요일: 매주 목·토
횟수: 주2회
시간: 10:30-12:00
내용: 경기민요와 판소리, 장구 등 습득
사업명: 일본어교실
요일: 매주 월·수
횟수: 주2회
시간: 13:00-15:00
내용: 기초회화 및 생활회화
사업명: 수족교실
요일: 매주 금요일
횟수: 주1회
시간: 13:00-14:00
내용: 손목, 손가락 운동

지역복지사업
사업명: 경로식당
요일: 매주 월-금
정원: 주5회
시간: 11:30-13:00
내용: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 제공
사업명: 무료 물리치료실
요일: 매주 월-금
정원: 주5회
시간: 15:00-18:00
내용: 초음파,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신체적 능력 증진
사업명: 무료 파마
요일: 첫째, 셋째 화
정원: 월2회
시간: 10:00-17:00
내용: 자원봉사자들이 파마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사업명: 무료 수족침
요일: 매주 수요일
정원: 주1회
시간: 10:00-12:00
내용: 수족침 시술로 건강 도모
사업명: 무료 한방진료
요일: 넷째 금요일
정원: 월1회
시간: 10:00-13:00
내용: 지역사회가 직접 한방치료 및 처치
사업명: 상담사업
요일: 수시
정원: 수시
시간: 09:00-18:00
내용: 지역사회내 노인문제에 대한 각종 상담 실시
사업명: 홍보사업
요일: 연회
정원: 연회
시간: 연회
내용: 연회 정기적인 기관지 발행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시 홍보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사업명: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요일: 주1회
정원: 주1회
대상: 55세 이상 남녀 구직자(별히 내방상담)
내용: 취업알선: 취업매장 구직상담, 구인업체상담, 희망업체 구직상담
취업교육: 직업교육, 소양교육, 현장실습
취업지원: 취업준비, 취업서류 작성, 면접 대비, 취업지원
취업후보: 취업지원, 취업매장 정보, 내방상담 등 관련

현목의 세상읽기

특허에 의한 살인



클리백이라는 약품이 있다. 이 약은 만성골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물질이다. 클리백은 스위스 노바티스 제약사에서 개발된 신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실험결과 90%이상의 환자에게서 혈액학적 반응과 50%정도의 주요세포유전학적반응을 보인 그리고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이다. 워낙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약이라서 전세계 백혈병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희망'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획기적인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성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바로 약값 때문이다.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한국내 클리백의 시판가격을 캡슐당 2만5천원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만일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에 클리백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경우 환자 한명의 한달 약값은 3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클리백의 약가를 캡슐당 1만7862원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환자는 한달에 214만3440원의 약값을 들여야 한다. 서민으로서의 엄청난 부담이 가는 약값이다.

클리백이라는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오랜 연구와 개발에 든 비용이 이 약에 반영한 결과이겠거니 하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비단 클리백만이 아니라 유명한 '비아그라'나 여타의 신약이라는 물질도 제조사의 결정에 따라 국제적인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신약이라는 물질만 개발하면 제조사는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어 있어 세계의 유명한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개발에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약이라는 물질을 좀더 파고들면 제조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 약값이 터무니없이 산정 된다는 것을 알게된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 등을 거쳐 세계에 내놓기 이전에 이미 국제적인 특허를 얻어 놓는다. 이렇게 얻어낸 특허는 배타적인 권리, 즉 특허취득자의 양해 없이 비슷한 물질을 개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력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신약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 할 수 없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류를 괴롭히는 불치의 병을 퇴치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는 신약. 그러나 그 속에는 제조사의 배타적인 권리가 담겨 있고 따라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게 만든다. 곧 '영장수 마음대로 매겨진 신약의 가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약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아니 차라리 그 약이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특허에 의한 살인'을 수도 없이 겪고 있다. 우리가 불치의 병이라고 알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은 사실 불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이즈로 인해 하루 8천명이 죽고 있다. 거의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민중이다. 미국과 유럽의 에이즈환자 가운데 85%가 지도부딘(AZT, 에이즈약물의 일종)을 복용하고 있어 적어도 발병을 안 이 후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에이즈환자 가운데 이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못미친다.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0.1%도 안되는 1천 내지 2천명 정도만이 에이즈치료제의 혜택을 입고 있다. 마치 에이즈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만연한 패루적 감염질환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그대들이 가난하여 치료약을 사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하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배타적 권리, 즉 특허로서 엄청난 비싼 약값을 보장하여 준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일 3만7천명이, 연간 4천만명이 치료약이 있으나 가난한 까닭에 제대로 손 한번 못쳐보고 감염성질환으로 죽고 있다.

올해 초 인도의 한 회사는 에이즈약물을 연간 350달러 정도로 보급하겠다고 하였다.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의 가격은 연간 1만5천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무려 43분의 1 가격에 해당한다. 의약품 특허가 없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개발자의 약가에 비해 최고 88분의 1 정도면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이쯤 되면 특허라는 명목으로 선진국의 제약자본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능히 알게 된다. 98년 4월 미국 화이자 제약사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내놓아 99년 10월 한국내 시판을 개시한 이래 8개월만에 우리나라에서 142억7천만원을 벌어들였다. 비아그라 시판 이후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 약품이 시중에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할 수 있다. 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체결된 다자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질병 퇴치 연구와 의약품 개발을 하여 왔다. 그런 노력은 특정 국가, 민족, 인종이나 계급 계층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양은 서양대로 의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동양은 또 나름대로 독특한 의과학의 성과를 전승하고 있다. 근래들어 이런 동서양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통합된 의과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인류의 건강한 생활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자본의 독점성 강화와 제국주의 성격의 또다른 얼굴



지적재산권의 보호, 신약품에 대한 특허를 내세워 폭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기적의 약이라면 가난하여 그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가진 자의 기만일 뿐이다. 제약자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치부되는 한편에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거위의 사료라는 비참한 지경에서 불행을 곱씹어야 한다.

인간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동에 의한 산물이다.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산물인 상품이 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을 해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문명화된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배타적 권리 보장을 위한 특허라는 제도는 분명 자본의 독점성만을 강화하며 나아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버릴 수 없게 한다.

현재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은 개발도상국의 민중을 불모로 엄청난 초과이윤을 앗아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특허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회원국 가입을 결의한 지난 11월 9일부터 카타르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때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등

의 적극적인 방해로 관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반대는 곧 하루 3억7천5백만원 이상의 이윤을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고스란히 바치게 하는 것이다. 이윤의 반대편에서 하루 3만7천명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또 가난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온갖 제도라는 것에 대해 '인간의 눈'으로 뒤집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손을 빌려 인간을 죽이는 '자본'의 역사적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파리에 있는 윤지와 경주에 사는 준호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광케이블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빛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

LG전선
www.lgcable.co.kr

· 광섬유 · 광케이블 · 광소자 · 광부품 · 데이터 케이블 · 광네트워크

김장김치에 사랑을 싣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불교총지종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겨울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쌀 및 김장김치를 나누어 드리는 행사를 12월1일에 진행하였다.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어렵고 힘든 겨울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가정까지 일일이 배달을 하여 드렸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여의구 관장은 "부처님의 보시와 나눔의 동체대비의 정신은 날로 각박해지는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진리다" 하였다.

쌀과 김장김치를 받은 김00 할머니(82세)는 "매년 따뜻한 정성을 보여준 불교총지종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감사함을 전하며, 한겨울 먹고 지낼 수 있는 쌀과 김장김치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진행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서 1가구당 김치 10kg과 쌀 1포씩 모두 50가구에 사랑을 전달하였고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였다.

3년전부터 진행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는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께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해의봉사단 귀국단원회의 후원으로 더욱 알차게 진행을 하였다.

불교소재 영화

달마야 놀자 관객들이 나섰다

불교영화 '달마야 놀자'가 전국 관객 150만을 넘었다.

박신양, 박상면, 홍경민, 정진영 주연의 '달마야 놀자'는 건달들이 조직의 입투 끝에 첩첩산중으로 피신한다는 상황설정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조직폭력배들과 절을 지키려는 스님들이 벌이는 헤프닝을 그린 휴먼 코미디다.

건달인 재규(박신양) 일당은 청명 스님을 위시한 스님들과 369계일, 삼천배 등 게임을 하며 산사 쟁탈전을 벌인다.

김해 은하사에서 전체 촬영 분의 90%가량을 찍으면서 개봉전부터 교계에 관심을 모았던 '달마야 놀자'는 11월16일 현재 관객 150만을 돌파하는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에 효관스님 선출

그동안 내홍을 겪었던 한국불교 태고종에 신임 총무원장에 효관스님을 선출하였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지난 11월27일 83회 정기 중앙총회를 개최하여 최태종 총무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무원장에 효관스님을 종회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신임 태고종 효관 총무원장은 194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60년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하

였으며 1975년 총무부장, 법인 행정원장, 사무총장, 재단법인 이사장, 불교사 사장, 중앙총회부의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종단의 신임을 받고 있어, 최근 태고종 내분으로 혼미를 거듭해온 태고종이 신임 총무원장을 선출로 내분이 종식되어 새로운 개혁 중단과 친체된 종단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속에 목향전

불교텔레비전 관악사육마련을 위한 서화전



선불교의 진수를 예술로 승화한 우리시대 최고의 거장 석주스님과 석정스님의 글씨와 그림을 통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공평아트홀에서 전시되는 '선속의 목향' 전에는 석주스님의 글씨 37점과 석정스님의 서화 104점이 전시되었다.

이 두 스님의 뜻깊은 만남은 불교 텔레비전의 위성방송 설립 기금 마련이라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선불교의 정신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체의 분별적 사유를 떠난 직관의 세계인 깨달음에 들어서는 것이며 선사화는 이런 깨달음의 정신을 표현해 내는 것으로 예술적 기교뿐만 아니라, 삶과 우주를 꿰뚫는 철저한 선적 사유가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경지에서 최고의 작품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석주스님의 글씨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아한 필체로 선적인 향기를 물씬 풍겨주고 있으며 석정스님의 선화는 "번개같이 번뜩이는 지혜의 관찰력으로 사물을 직관하고, 선 수향으로 다듬어진 맑은 먹과 날카로운 붓으로 그려거나 쓴 것이다"라고 평한다.

이날 석주스님은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은 "불자들의 커다란 원력 속에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재도약을 위한 큰 걸음에 나가고 있다"며 불교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 참으로 고맙다며 앞으로 힘닿는 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과 석정스님(인간문화재 47호)은 "영상매체의 효과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그 역할이 커지며 이 속에서 불교텔레비전의 역할을 포고에 최전선에 서있으며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은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사명속에서 비단물에 물방울을 보태는 마음으로 작품을 내놓았다"는 소감을 말씀하였다.

도심속에 핀 두 거장의 작품은 무언설법으로 보는 사람의 망상을 쉬게 하고 도에 이르게 하는 선부일치의 정신세계가 나타나 있다.

쓴소리 단소리

법정스님의 무소유리는 책자가 있다. 76년에 초판이 나와 꾸준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에세이 집이다.

무소유에서는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잔잔한 권유가 마음을 파고든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었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법정스님은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는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을 찾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티끌 한 점 없는 맑은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 노, 병, 사의 괴로움과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여 좀더 행복하게, 좀더 멋있게, 좀더 풍족하게, 좀더 인락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욕망과 욕심,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의 먹구름이 인간의 마음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빠지게 만든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과 소유욕은 때로는 평범한 인간을 흉악범으로 혹은 아귀 추생보다 못한 인간으로 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칫 잃기 쉬운 인간의 본성, 자성을 찾게 만들어 주는 깨달음의 종교임이 분명하다.

진언행자의 모습은 진정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수행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부처님의 진실된 언어를 지공 삼아 욕망과 번뇌의 빚줄기를 피하고 부처님의 법을 요 삼아 해탈의 따뜻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세간에 입방아에 울르는 수행자 아닌 수행자가 있어 불교를 믿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 간간히 우리를 슬프게한다. 그러나 바루하니 가사장삼 못짓고 수행하는 눈푸른 남자들이 있어 그나마 불교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곳이 평생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누워 있는 곳이 부처님 법계임을 알고있는 진언행자는 특히 청빈나도의 정신으로 욕망과 소유욕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무명 중생들에게 진언의 묘의를 전수하는 선각자임을 향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남 하나한방병원 자매결연

총지종 교도 할인 및 우대로 건강검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대체 의학을 통합하여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적용하는 신 개념의 퓨전의학을 내세우는 강남 하나한방병원 김철원 이사장 겸 원장과 해암 불교총지종 총리원장간에 지정치료 협약서(지난 9월 28일)를 맺었다.

동서협진 전문병원 강남하나한방 병원은 한방 4개과(한방 1,2,3,5과/침구과)와 양방 4개과(가정의학과/과, 신경정신과, 치과)로 구성되어 있다. 김원호(총무과장)은 "저희 강남

하나한방병원은 전문의로 이루어진 최상의 의료진이 모여 한방과 양방이 협력하여 진료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한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X-ray 촬영, 적외선진체열촬영(D.I.T), 가속도맥파 검사기, 뇌혈류초음파검사(T.C.D), 생혈액 분석(Bioscope), 임상병리검사 및 정량검사(EAV)등을 통하여 질병의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양방의 전문적 진료와 침, 뜸, 한약을 비롯한 한방치료로 최신의 장비와 숙련된 기술로 최고의 치료 성과를 얻고 있다."

김철원 이사장은 불교총지종과 지정병원 진료협약을 맺어 좋은 인연이 되었으며 앞으로 불교총지종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자원봉사 및 진료서비스를 약속했다. 특히 강남 하나한방병원은 지난 10월 불교총지종이 후원이 된 지난 3회 역삼 은빛 축제에서 불교총지종 교도들과 인근 노인분들에게 질 높

은 의료서비스와 건강검진 자원봉사를 하여 많은 교도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진각종 제9대 총인 혜인 종사 추대

불교진각종 제9대 총인에 혜인 종사를 추대하여 지난29일 총인추대법회를 진각종 총인원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총인 추대법회에서 혜인 총인은 인사말을 통해 "종조의 창교이념인 밀교종중,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현현의 정신으로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는게 우리의 사명이며, 교법을 구체적이고 확고한 체계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혜인총인은 진각종에 입문한 이후 총리원장과 종의회 의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처는 등 종중 회당대 종사의 법통과 수행기능을 그대로 이어 원로스승으로 종단내에서 폭넓게 존경을 받았다.

이날 해암총리원장은 "같은 밀법을 수행하는 진각종의 총인추대를 축하하며, 이땅에 밀교종중에 총지종과 같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레와 떠나는 이달의 문화기행

- ▶ 정치와 요정문화의 산실을 찾아서
 - 날 짜 : 2001. 12. 9(일) 10:00
 - 출 발 : 교보문고 정문 앞(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바깥)
 - 답사지 : 삼청각·길상사·성균관 등
- ▶ 수원외의 자연과 문화유산
 - 날 짜 : 2001. 12. 27(목) 09:30
 - 출 발 : 신길역 1번 출구 매표소 앞(지하철 1·5호선)
 - 답사지 : 곤충 박물관·용주사·용건능 등
- ▶ 한해가 저무는 우리의 정서를 찾아서
 - 날 짜 : 2001.12. 29(토) 10:00
 - 출 발 : 모란역 1번 출구 매표소 앞(지하철 8호선·분당선)
 - 답사지 : 성남 모란 5일장·경동 약초시장·황학동 벼룩시장 등
- ▶ 해돋이는 영일만과 낙동정맥의 문화유산
 - 날 짜 : 2001.12. 31(월) 저녁 10시 ~ 2002. 1.1(화) 저녁 7시(무박)

출 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지점)

답사지 : 칠포해변 해돋이·냉수 신라비와 고분·양동마을·옥산서원·정혜사지

참 조 : 신년 민속 체험 행사도 합니다.

▶ 기차타고 떠나는 안동의 양반 문화와 농촌 민속체험 기행

날 짜 : 2002. 1. 4(금) 08:30~1.6(일) 18:00(2박 3일)

출 발 : 청량리 기차역 2층 만남의 장소(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바깥)

답사지 : 도산서원·퇴계이항생가·하회마을·안동민속박물관·지례예술촌

*도립공원 청량산·충주호 양건 해상촬영장 등등

*참가방법 : 전화(712-5812.3) 예약 후 온라인으로 입금

홈페이지 : <http://www.ng-odoore.com>

e-mail : doore@ngodoore.com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접목·협진

하나의원

교통편

- 버스① : 33, 212
- 버스② :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하차 ⑧번 출구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합병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가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가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한방물리요법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스포츠의학실

◎물리치료실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 (02)569-1011~4

FAX : (02)563-5577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시고,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대나무 숲으로 둘러 쌓인 소담스런 도심사찰 화음사

2개월간 방황을 마치고 다시 종단에 의탁한 몸으로 처음으로 진주 화음사 가는날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내린 날이었다.

그 방황속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또 부처님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서운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일체의 가르침은 하나의 근본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진리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가슴에 저며든다.

화음사를 찾는 날은 마침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날이어서 마치 큰 스승을 친견함을 축복하는 모양이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무주 함양 거창을 잇는 산세의 수려함과 부처님의 손자락에서 피어난듯한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의 단풍들은 더욱 진박음을 주었다. 찬란한 아침햇살에 안개가 눈녹듯이 없어짐이 부처님의 진리로 백천만겁의 업장을 없애 참마음



▲법지원 전수님

한한 미소와 자비로운 자태는 마치 관음보살의 모습처럼 보인다.

참나를 내보이는 듯 하다.

화음사의 창설은 현 신정회 회장보살님이신 해탈심 보살님과 부회장보살님 그리고 총무보살님의 사원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특히 해탈심보살님은 진주에서 부산 정각사까지 매일 불공을 다니며 진주에 총지종 사원을 세워달라는 불공을 멈추지 않았다. 보살님들의 원대한 서원과 지고지순한 정성은 마침내 총기 14년 4월 지금 진주 중앙시장에 목조 단층주택을 얻어 선지서원당으로 출발을 하여 1987년 3월 현 화음사로 이설불사를 하였다.

해탈심보살님은 "지금 열반 스승이 되신 정각원, 청암, 복지화 열반스승님과 현 특정 종령님의 노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화음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보살님의 고운 자태에 화음사의 연역이 고이 고이 묻어 나는 듯 하였다.

정사님과 전수님이 총지종과의 인연은 멀리 1981년과 82년도 까지 올라간다.

전수님이 불교 총지종과 먼저 인연이 되었다.

초기 총지종의 중흥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열반스승인 당시 정각사 주교 정각원스승님이 계셨다. 현 스승님의 대부분이 당시 정각사 주교였던 정각원 스승님의 제자로 인연을 맺었다.

법지원 전수님도 여느분과 마찬가지로 정각원 스승님과 인연이 되었다. 처음 정각원 전수님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진리를 위해 49일 불공을 해라는 명령에 법지원 전수님은 "저는 잘나지도 못하고, 못 배우고 했지만 오로지 스승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 옹맹정진을 하였다"한다. 전수님은 마침 내중을 통한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얻어 진언행자의 길을 걷게 되어 중생 교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정사님은 전수님이 총지종과 인연을 맺은지 1년이 지난



▲진주 화음사 전경

선지 서원당에서 출발한 진주화음사는 많은 교도와 함께 하는 비로자나 법계궁으로 화음사의 넓은 정원은 각가지 꽃과 나무들이 있다. 정사 전수님의 마음처럼 항상 웃으며 교도들을 반기고 있다.

어느날 전수님은 반야심경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고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은은하게 울려나오는 반야심경과 외등 밑에서 바느질 하는 전수님의 모습을 본 정사님은 마치 관음보살이 화현되듯 나타난 듯 정사님을 감동시켰으며 그날 들었던 반야심경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날로 인해 전수님과 같이 정각사에 찾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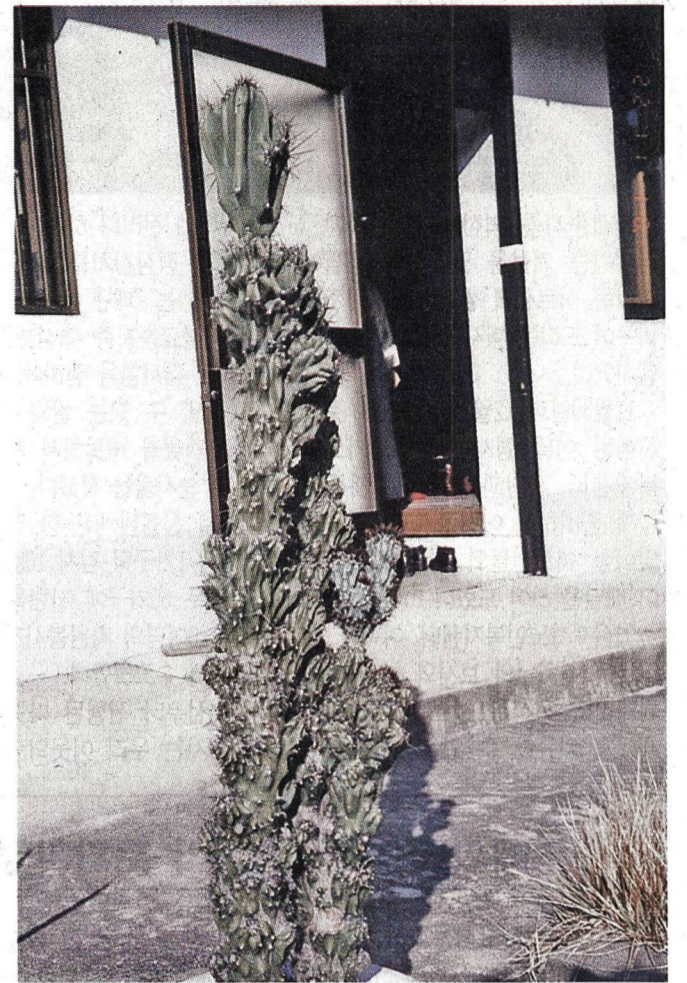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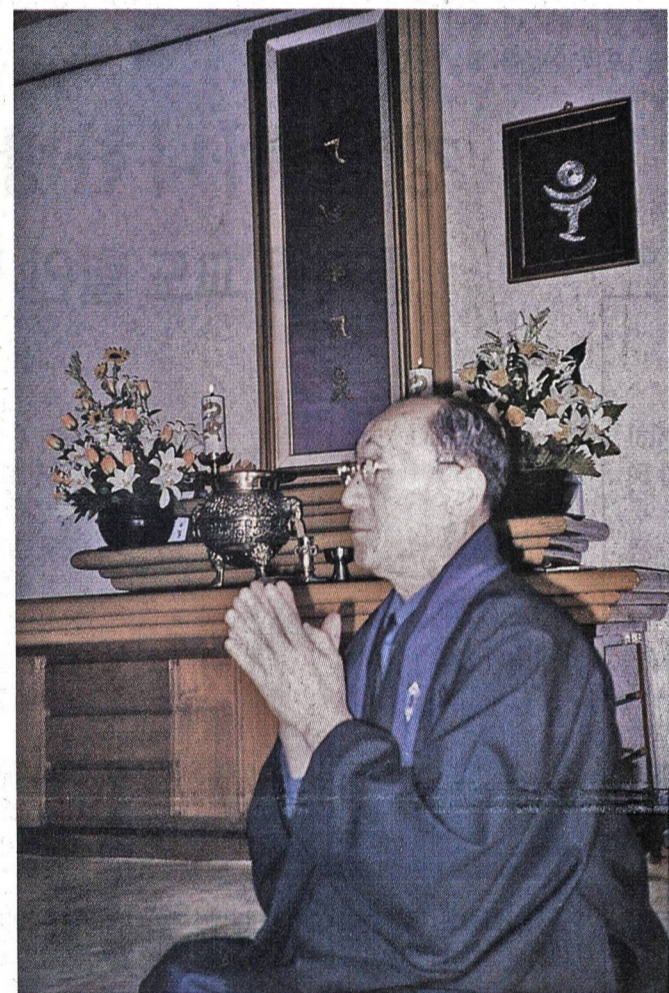
전수님의 매일된 사분정진의 모습을 보고 지내왔던 정사님이지만 그날의 모습은 잊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정사님 또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직도 화음사 앞마당에는 선인장 한그루가 놓여져 있다. 정사, 전수님이 20년 넘게 키워온 선인장이다. 부산 정각사에서 시작된 진언행자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으며 그길에 항상 선인장은 스승님의 동반자였다.

선인장과 정사 전수님은 님은꼴이 너무 많이 있다.

선인장은 열악한 토양인 물이 거의 없는 사막이나 높은 산악 지역 뿐만 아니라 영하 20도 날씨에도 견뎌내는 생명력은 총지종 교화활동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속에서 진언수행과 교화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사 전수님의 생명력을 볼 수 있다.

선인장을 가장 선인장답게 하고 다른 식물과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인 가시는, 수행자로서 자칫 빠지기 쉬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탐구 개인적인 진언수행뿐만 아니라 고뇌하는 중생이 실제로 겪고 번뇌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정사, 전수님과 20여년 동안 함께 해온 선인장 선인장의 자태는 정사, 전수님과 닮은 점이 많다.

◀법정 정사님. 진언행자의 기쁨이 온몸에 서려있어 법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듯 하다.

는 종단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대한 문제, 물질문명의 발달에 반비례해서 인간의 존엄이 점점 상실되는 문제, 환경문제등 정사 전수님 관심사와 설법은 그칠 줄 모른다. 선인장처럼 있는 가시의 수만큼이나 정사 전수님관심과 교화의 방편은 두 스승님만의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꽃잎 색깔이 다양한 점과 색채가 선명하고 개화시간이 긴 선인장의 꽃잎은 화음사 교도들의 해탈로 이어져 사업의 번창과

물이 일어서 얼음이 된 것은 사람사람이 다 알거니와, 천지세계 만상을 이룬 것은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해탈심 회장님, 원행심 부회장, 서원행 총무들이 진주 화음사의 신정회를 이끌고 있어 진주 화음사에 교세발전에 든든한 기둥과 초석되고 있다.

가정의 화합 그리고 교도 가정의 건강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정사님은 보조선사의 <수심결> 이야기 해주셨다.

"과거 윤회의 업을 따라 생각하면, 몇 천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구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불도를 구하고 자 하여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오랜 겁에 걸쳐 생사에 빠져 깨닫지 못한 채 갖은 악업을 지은 것이 그 얼마인가, 때때로 생각하면 긴 슬픔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게으르게 지내다가 다시 그 전 같은 재난을 받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지금의 인생을 만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도 닦는 길을 어렵지 않게 한 것인가. 참으로 눈 먼 거북이 나무를 만났듯이, 겨자씨가 바늘에 찔린 격이다. 그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극락과 지옥은 우리 가까이 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남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인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아야 한다.

인연의 무서움과 과보에 대한 결과를 믿는다면 불제자들은 아니 특히 밀교를 수행하는 진언행자는 마음한곳 티끌이 없어야 한다는 정사 전수님의 말씀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가슴에 긴 여운으로 남았다.

마치 오랜 인고 끝에 핀 선인장의 향기가 광명대해의 사막을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冬至

"새로운 발심으로 탐·진·치 삼독을 해탈"

오는 22일은 동지다

동지는 1년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 시간은 오전 4시21분이다. 이날은 세가지 재난(三災)을 물리치기 위해 불공한다. 불교에서는 성, 주, 괴, 공(成,住,壞,空)의 네겁(四劫)으로 나타내지는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가 성립되어서 머무르고 당면 기간의 끝에는 세가지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한다.

도병(刀兵), 질병(疾病), 기근(饑饉)의 소삼재(小三災)가 있고 또한 세가지 재난은 수재(水災)와 풍재(風災), 화재(火災)의 대삼재(大三災)가 있다.

이렇듯 하늘이 주는 재난과 사람이 지어서 받는 재난이 있는 것이다. 동지는 이러한 재난을 물리치고 나라가 화평하고 국민이 평안해지도록 大願을 바라며 가정의 재산과 평화를 위하여 불공하는 날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고 하여 다음해가 되는 날이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설"이라 하였고 한다. 그래서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들을 한다. 동짓날의 팥죽은 시절식(時節食)의 하나이면서 신앙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데 옛날부터 팔에는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해서 팥죽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집안의 여러곳에 놓거나 뿌리거나 하여 집안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한 풍속이다. 팥죽을 먹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삼재(三災) 즉 탐, 진, 치를 물리치고 새마음으로 성숙하게 살기위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 것이다.

팥은 색이 붉어서 양(陽)색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사(敬事)때나 재앙이 있을때도 팥밥, 팥죽, 팥떡을 해먹는 것도 같은 의미다.

무당이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의 천으로 옷을 입는 것도 귀신을 쫓고 소원을 성취

하기 위한 것이다. 붉은 색은 나쁜기운을 멀리하고 파란색은 죽은 영식을 천도하고, 노란색은 소원성취의 뜻이 있는 것이다. 동지는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잡귀와 재앙을 멀리하고 부처님전에 지난해를 참회하고 소원을 빌어 복을 지으려는 뜻깊은 날이다. 동지날이라 해도 애동지에는 팥죽을 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지가 초승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동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다고 한다. 옛날 태양신을 숭배하던 '페르샤'의 '미드라교'에서는 동지(12월25일)를 태양탄신일(太陽誕辰日)로 정해서 태양의 부활을 축하했는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면서 '미드라교'의 축제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해버렸다.

12월24일은 우리 종조(宗祖)님의 성도일(成道日)이다. 창교절(創教節)이며 해탈절(解脫節)이다. 우리는 우리법을 실천해서 동지불공과 12월24일 뜻깊은 불공을 잘해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지난해 불공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아끼지 못한 일을 교훈삼아 마음속의 삼재(탐, 진, 치)를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더욱 발심하여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옹맹정진해야 한다.

불교총지종 화음사 법정